

# 수시비중 줄고 코로나에 재수생 증가 꼼꼼한 전형 체크로 '꿈의 대학' 도전



전국 4년제 대학이 9월10일부터 14일까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050명으로, 이 가운데 26만2808명(75.9%)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에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특기자 등 다양한 전형이 있으며,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시 지원 횟수는 최대 6회다. 특히 올해는 수시모집 비중이 줄었고,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

형을 신설·확대했다. 통합 수능 첫해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수생 증가,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등 입시 변수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보는 대학이 많아진 것도 2022학년도 수시의 특징이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올해 12월 16일까지 발표되며, 합격자 등록은 12월 17~20일 진행된다. 수시 최초·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주요 대학들의 수시모집 요강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유토이미지

## 학생부교과 신설... KU자기추천 등 선발 줄여



건국대학교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전체 모집인원(3396명)의 60%인 1977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KU학교추천(학생부종합전형) 폐지와 학생부교과(KU지역균형) 신설이다. 학종 전형인 KU자기추천과 사회통합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각 60명, 24명 줄었다. KU는 수능우수자는 전년과 비교해 모집인원이 10명 줄었다. 건국대 대표 학종 전형인 KU자기추천은 지난해보다 60명이 감소한 790명을 선발한다.

KU자기추천은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으로, 1단계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성취도와 탐구활동 등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면접평가에서는 전공적합성과 인성(소통능력), 발전가능성(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한다.



KU지역균형은 학생부종합전형 KU학교추천이 폐지되고 신설된 교과100% 반영 교과전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의 고교 졸업(예정) 또는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자다. 추천인원에 제한이 없고, 고교교사가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장 추천인원 명단을 입력하면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을 유념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



이태형 입학처장

## 학업·교내활동 충실한 학생 '좋은 평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4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860명,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1560명, 실기/실적위주 전형으로 7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은 일괄선발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 80%와 서류 20%를 합산한 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일반전형-계열적합형, 기회균등)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의 양이나 특정 활동의 유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지원자의 고교 환경 내에서 학업과 교내활동을 충실히 하여 대학진학 후에도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892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 417명, 학생부교과전형 169명, 미



라인재전형 141명, 기타 지역인재·농어촌학생 등 특별전형으로 165명을 선발한다.

올해 세종캠퍼스 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점수 70%와 학생부교과점수 3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세종캠퍼스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용수 기자



박민규 인재개발처장

## '교과전형' 면접고사 없이 교과성적 100%



국민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별도의 면접고사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100%로 일괄 선발한다.

2022학년도부터는 졸업(예정) 고등학교의 학교장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다. 전형 취지에 맞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2021학년도와 달리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필수 응시영역은 없으며, 계열에 맞는 등급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국민프린티어전형과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나뉜다. 면접에 강하면 국민프린티어전형, 서류평가에 자신 있다면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지원이 유리하다.

국민프린티어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제출서류와 연계한 개별 확인면접을 통해 수험생의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서는 그간 정량적으로 평가했던 교과 환산 점수를 과감하게 없애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평가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 없이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대 수시모집 기간은 9월 10일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다. 원서는 인터넷으로 기간 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이준희 입학처장

## 약학과 신설, 자소서 폐지 등 입시부담 줄여



단국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전체 모집인원의 62%에 해당하는 311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전년과 비교해 정시 선발 인원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1400명(죽전 742명, 천안 658명)으로 전년대비 모집비율은 유지했다. 이외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죽전) 261명,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천안) 703명, 논술우수자전형(죽전) 330명, 실기/실적위주전형 417명(죽전 209명, 천안 208명)을 선발한다.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은 ▲약학과 신설 ▲자기소개서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의학계열·약학과 DKU인재, 약학과 기회균형선발 제외) ▶면접고사 미실시(의학계열 및 문예창작과 DKU인재, SW인재 제외)로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대폭 줄였다.

죽전캠퍼스는 학생부교과에서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을 폐지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신설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8명까지 학교장추천



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죽전캠퍼스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천안캠퍼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춰 논술 반영비율을 높였다. 따라서 논술고사 반영비율이 높아 논술고사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2022학년도 단국대 수시모집 입학원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 제출 기한은 9월 15일까지다. /한용수 기자

/한용수 기자



이병민 단국대 입학처장